

미술·서에 완전 분리... 장르 특성 심사 반영돼야

제주도미술대전 올해부터 단독 서예문인화대전과 분리 개최 1차 심사 영상 분야 배치 안돼 서울 프로젝트는 지속 미지수

“2016년부터 추진해온 제주도미술대전 혁신 의지의 최종결정판이 올해 공모전입니다. 지난해 제주도미술대전을 미술과 서예문인화 부문으로 이원화해 치렀다면 올해는 제주도미술대전과 제주도서예문인화대전으로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강민석 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장은 제44회 제주도미술대전 입상작이 결정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도미술대전이 제주도에 있어서 미술단체인 제주미술협회로 이관된 이후 수상 혜택 강화, 정교한 심사제도 마

련, 입상 비율 조정 등 전문성과 합리성을 담아 내려 노력했고 올해 비로소 완성된 모습을 갖췄다는 이야기였다.

도미술대전은 제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미술 공모전이지만 그동안 입상작 남발, 수상작의 권위 등을 놓고 논란을 겪었다. 청년 작가들 대상으로 한 각종 공모전이 늘고 혜택이 다양해지는 현실에서 도미술대전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위기 의식도 생겨났다.

이에 도미술대전 혁신안 마련에 나선 제주미술협회는 지난해부터 미술 부문 분야별 대상 제도를 폐지하고 1차 포트폴리오 심사, 2차 실제 작품 현장 심사로 대상 1점을 가려내고 작품 매입비를 포함 상금을 1000만원으로 올렸다. 특히 다음해 개인전 개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미술대전 수상이 신진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위한 발판이 되도록 이끌었다.

하지만 과제도 있다. 올해는 전년보다 응모작이 소폭 증가했지만 전국 공모임에도 여전히

제주 지역 참가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입체 부문에서 영상, 설치 작품을 공모했지만 1차 심사에서 해당 장르 심사위원이 별도로 배치되지 않았다.

수상 작가에 대한 지원이 연속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제주도립미술관과 협업해 ‘제주-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해 도미술대전 대상·우수상 작가들이 ‘제주 스타트업 아티스트트렌트’이란 이름 아래 공모전 수상작과 신작들로 서울 전시를 가졌지만 내년에는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강민석 회장은 “다음해 개인전 개최 등 수상자 혜택이 알려지면서 도미술대전에 대한 관심이 차츰 늘고 있고 전국 미술대학 등을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며 “장르 특성에 맞는 심사위원 위촉은 개선해나갈 계획이고 도미술관과 연계한 서울 전시를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결’로 대상 받은 김현성씨 “전통 소목 바탕 우직하게 작업하고 싶어”

목재 걸면 그을리는 낙동에 현대적 스타멘딩 기법 가미 현무암서 퍼지는 물결 표현 제주소목연구회 운영 통해 제주 목가구 발전시킬 꿈꿔

“대상 수상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딸 아이 덕분에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일 제주도문화회관 전시실에서 만난 제44회 제주도미술대전 대상 작가인 김현성(36)씨. 지난해 재료에 대한 집념을 보여준 ‘씨즈’로 도미술대전 우수상을 수상했던 그는 이번에 ‘물질을 다루는 기량이 출중하고 주제에 접근하는 태도가 진지하다’는 평을 들으며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에대 연극과에서 무대미술을 전공한 그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가구 제작 활동을 해왔다. 나무로 목기나 목가구 등을 만드는 소목장 전승자의 문화재로 4년간 공부했고 경기도무형 문화재 전수장학생으로 전통 목공예를 익힌 경력이 있다. 그는 이번 대상작인 ‘결’을 일컬어 공예적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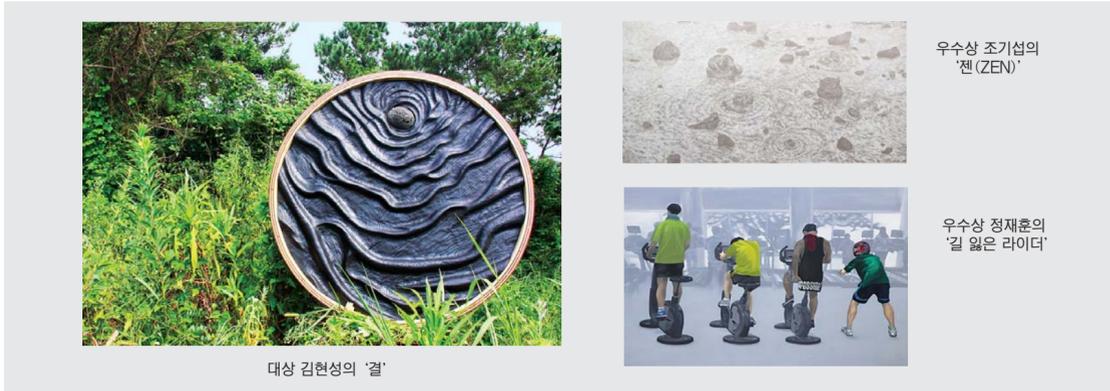
면 작업이라고 했다. 상수리나무 등 목재를 이용한 지름 1m30cm의 둥그런 원 안에 현무암에서 퍼져나가는 듯한 물결이 이는 형상을 담아낸 작품이다. 전통적인 목 상감 기법과 나무를 써서 휘는 현대적 기법의 스타멘딩을 이용해 파도치는 결을 표현해놓았다. 특히 걸면을 불로 그을려주는 낙동(목재탄화)법으로 물결의 운동감과 질감을 살려내려 했다. 작가는 이를 통해 오랜 인내와 긴 시간 끝에 비로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제 작업의 바탕은 전통 소목입니다. 손을 이용한 수공적인 부분과 전통적인 부분이 담겨있습니다. 지난해 우수상 작품이 100% 현대적 기법을 사용했다면 올해는 전통적 기법이 가미되었을 것입니다.”

제주 이주 4년차인 그는 작업에 필요한 1차 자원인 목재를 구하는 게 쉽지 않고 비용 부담이 큰 점, 소목과 관련한 커뮤니티가 거의 없는 점을 제주 생활의 어려움으로 들었다. 반면 아름다운 자연에서 얻는 영감과 에너지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제주소목연구회를 운영중인 그는 이를 기반으로 제주 목가구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동양의 미니멀은 꼭 채워진 상태에서 조금씩 밀어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 작업은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앞으로 현대적 감각과 공예적 요소가 결합된 작업을 우직하게 해나가려 합니다.”

진선희기자



제44회 제주도미술대전 김현성씨 대상

대상작 공예적 평면작업 ‘결’ 지난해 입체 우수상 수상 경력 우수작가상은 조기섭·정재훈 오는 7일까지 입상작 15점 전시



조기섭



정재훈

제44회 제주도미술대전에서 김현성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회장 강민석)는 1일 제주도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린 2차 심사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평면 44명 44점, 입체 15명 15점 등 59점이 접수됐다. 도의 응모작은 8명 8점이었다. 1차 포트폴리오 심사, 2차 수상작가 심사를 거친 결과 대상 1명, 우수작가상 2명, 선정작가상 12명이 뽑혔다.

대상작은 김현성의 공예적 평면 작업인 ‘결’이다. 목재 탄화 기법과 현무암을 이용해 돌에서 퍼져나가는 물결의 운동감과 질감을 담아

냈다. 김현성 작가는 지난해 제주도미술대전에서 입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던 경력이 있다.

우수작가상은 조기섭의 ‘ZEN(禪)’, 정재훈의 ‘길 잃은 라이더’가 각각 차지했다. ‘ZEN’은 장지에 은분과 호분을 이용해 지워내고 탈각시키는 작업을 반복하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그려냈다. ‘길 잃은 라이더’는 공간의 분위기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표현했다.

선정 작가상은 박길주의 ‘향기로운 나무’, 임지연의 ‘유나이티드 스트러처(united

structures)’, 현덕식의 ‘뚜벅이 넌 최고야’, 주현이의 ‘트랜스퍼런스(TRANSPARENCY) 4’, 이연정의 ‘기억을 삼키다’, 김산의 ‘아래로부터의 풍경’, 김선일의 ‘소원의 탑’, 이승훈의 ‘바라보다’, 백성원의 ‘백스 랜드스케이프 더 댄싱 오브 한라산(Baek's Landscape The Dancing of Mt. Halla)’, 최선영의 ‘어느 봄날에 풍경’, 이정웅의 ‘법고창신(法古創新)’, 이은비의 ‘그해 겨울’에게 돌아갔다.

대상에는 상금 1000만원과 다음년도 개인전 개최 지원 혜택이 주어졌다. 우수작가상은 상금 각 300만원, 선정작가상은 각 50만원이 전달됐다. 수상작은 오는 7일까지 문화회관 1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다. 전년도 대상 수상작가인 김진수 개인전도 7일까지 문화회관 2전시실에서 펼쳐진다.

심사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1차=김성환(서양화, 심사위원장) 김해근(서양화) 광정명(한국화) 유창훈(한국화) 박성진(판화) 김만(판화) 조운득(조소) 강시권(조소) 박현영(공예) 박지혜(공예) 문영만(디자인) 김경진(디자인) ▶2차=이경모(예술공간 이아 센터장, 심사위원장) 장정렬(제주도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안소연(미술평론가) 김보라(미술평론가). 진선희기자

심사평



부문별 출품수와 관계없이 조형성·참신성 기준 선정 1차 심사위원장 김성환

출품작의 경향이 다양해지고 작품성 또한 높게 평가할 만한 응모작들이 많아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한국화, 서양화, 조소, 판화, 공예, 디자인 각 분야별 심사위원들의 격론을 거쳐 다양성과 개별성, 탄탄한 조형적 탐구를 바탕으로 한 신인 작가만의 독특한 예술성이 표출되고 돋보이는 작품들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부문별 출품수와 개별성에 개의치 않고 객관적 입장에서 우수한 작품을 엄선해 수상작을 뽑았다.

선정 작품들은 다양성과 조형성, 참신성을 보여준 경우가 많아 제주 미술의 앞날을 밝게 해줄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너무 쉽게 작품에 접근하려는 의식이나 매너리즘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 미술협회제주도지회장>



“우열 가리기 힘들 만큼 비등” 대상 재료 다루는 기량 출중 2차 심사위원장 이경모

1차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과한 총 15점의 선정작들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비등했다.

이중에서 김현성의 ‘결’을 대상작으로 뽑게 된 이유는 재료와 도구, 물질을 다루는 기량이 출중하고 주제에 접근하는 태도가 진지해 심사위원들에게 강한 어필을 했기 때문이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ZEN’은 한국화의 전통적 기법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대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를 자유롭게 설정함으로써 전체가 어색함이 없이 조화되고 있다.

또다른 우수상 수상작인 ‘길 잃은 라이더’는 현대인의 일상을 독특한 시각으로 포착해 관객에게 신선한 충격을 유발하고 있다.

<예술공간 이아 센터장>

제주의 파란하늘, 저희가 지킵니다.

우리집 전기요금 “0” 원 도전!
주택용 태양광



주택 지붕, 옥상, 마당, 주차장에 설치
5~7년 이면 투자비 회수

사업장 전기요금 “확” 줄이기
일반용 태양광



상가/사무실/공장/펜션/식당
전기요금 추가할인 정책 혜택

안정적인 “수익 보장” 사업!
태양광 발전소



토지 및 각종 건축물 옥상에 설치
은행 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

직원 모집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AS담당 ○명
경력자/차량소지자/자격증소지자 우대

제주솔라에너지

www.jejusolar.co.kr

742-5775

고품질 자재 / 정직한 시공 / 확실한 AS